

만물은 그 자체로나 혹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생명이 무한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인도주의 사상을 야생으로 무한정 확대시키는 식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간중심주의적 윤리 전통을 반성하고, 생태학적 생명 모델에 의해 지지되는 범위 내에서 생명 윤리를 성찰하고자 한다. 이 성찰은 물론 만물의 상호연관성 내지 상호침투성의 심오한 의미에 대한 재인식을 함축한다.

왜 하필이면 윤리인가

인간이란 윤리적 호소에 의해 움직인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에 의해, 그리고 무엇이 진실되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감각에 의해, 즉 자신의 감수성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다. 윤리적 성찰의 용어와 분위기 대부분이 감수성에 대한 것이다. 이 감수성은 과거의 인간중심주의와 합리주의에 밀접히 얽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한다(새롭게 떠오르는 자연에 대한 참여감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새로운 의식으로 가는 길은 심오한 직관과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인도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237)

진화에서 향상진화(생명의 고양)는 ‘경험의 풍부성’이라고 불린 만한 어떤 것을 향해 있다. 그러면 경험의 풍부성을 증대시키는 윤리적 신념이란 무엇인가?(239)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윤리

레오폴드는 이렇게 말한다: 윤리의 확장은 실제로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다. 생물학적으로 윤리란 생존경쟁에서 행동의 자유에 가해지는 제약이다. 철학적으로 윤리란 반사회적 행위와 사회적 행위를 구분해내는 것이다. 생물학자는 이것을 共生이라고 부르는데, 일정하게 진화된 공생의 양식이 바로 우리가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 공동체가 진화해 갔을 때 일련의 윤리적 척도를 첨가해 나가는데, 첫 번째 윤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추구한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였다. 인간과 땅의 관계,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를 다룬 윤리는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진화를 올바르게 읽어내기만 하면 이 세 번째 요소까지 윤리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진화의 연속 과정의 3단계이다. 이 진화의 단계에서 보존 윤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동물이 단지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인식은 그 동안 인간중심주의적 체제 속에서 감상주의적 사치 정도로 어정쩡하게 있었다. 슈바이처에게 생명 경외 윤리란 모든 생명에 확대되어 있는 무한 책임이다. 그러나 이 책은 슈바이처의 무한정 확대에 동의하지 않고, 현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윤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즉

공리주의와 칸트의 범주 윤리도 넘어서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윤리이론은 그것의 일관된 적용에서 인간 이외의 모든 다른 존재를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한다. 어떤 존재의 가치는 인간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윤리 이론들과 또한 그것들이 뒷받침하는 경제 및 정치는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은 대상들을 향해서도 이런 태도를 확산시켜 나갔다. 수많은 인간들이 오직 다른 인간에게 중요하다거나 쓸모가 있을 때에만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되었다. 우리는 광범위한 주체 공동체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객체 공동체의 객체이기도 하다. 주체인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주체들 역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모든 동물이 목적으로 간주될 때에는, 칸트의 주장과 달리, 목적이 수단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들에게서 목적과 수단을 함께 인정하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은 이렇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존중하되, 그것이 다른 존재에 대해 도구적 가치가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본래적 가치로 인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적 가치란 그것이 갖고 있는 **경험의 풍부성**을 말한다. 우리가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올바르게 균형 있게 가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체를 적절히 다루게 된다.

이러한 윤리의 種差, 종차의 윤리와 심급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바위<살아있는 세포<식물<동물(250-51) : 그 존재 자체의 풍부한 경험
이 윤리로 대우해야 할 고등 존재의 조건!

동물권(動物權)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동물을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잘못이다. 풍부한 경험이란 조야하지만 실천적이 개념일 수 있다. 돌고래의 경우 참치나 상어보다 풍부한 주관적 삶을 보여 준다(253). 따라서 우리는 돌고래가 그와 유사한 다른 종의 구성원이 갖는 본래적 가치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돌고래는 우리에게 참치나 상어를 능가하여 우리에게 도덕적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이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 혹은 각자가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는 확신과 더불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생명권을 확증하는 논리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의 생명권에는 살인 금지의 논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여기서 세 가지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259). 이 세 가지 살인 반대의 근거를 이제 동물에게도 적용해 보자. 그러면 보호해야 할 동물권의 윤곽이 드러난다. 닭에게는 살인 금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반면 침팬지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261).

인권

인간은 일차적으로 그 자체로 목적이고, 오직 부차적으로만 수단이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봉

사하는 것은 타당하다. 인간의 본래적 가치의 자리가 인간 경험에 있다면, 그 인간만다 그 경험이 다양하다면, 사실상 인간 개인의 가치에는 차이가 있다. 인간의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첫 번째 윤리 원칙은, 우리는 가능하면 어느 곳에서도 경험의 풍부성을 촉진시켜야 하고, 누구나가 더욱 온전한 인격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특히 두 집단에 주목한다. 어린이와 간절한 성장을 열망하지만 불운한 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이상하게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267)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인 한, 생명윤리에 대한 절대론적 관점(모든 생명이 무한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낙태와 관한 관점, 노인의 무의미한 생명 연장과 삶의 질에 대해서.(271-273)

生命圈의 윤리

개인주의적 윤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적절하다. 개인주의적 윤리는 얼핏 윤리처럼 보이는 사이비 가짜 윤리이다.(274) 문제는 결국 생물종의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종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생태계의 권리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리 확대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생명의 그물, 다양성의 가치, 다른 존재와의 내연관계, 경험의 풍부성을 증진시켜 생명 그 자체를 극대화하는 방법,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관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향상진화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276-82)

1. 문명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기 2. 인간 삶의 양을 극대화하기 3. 인간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4. 풍부한 경험을 극대화하기

이상의 생명 윤리는 종교와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5장은 6장으로

(발췌 요약 / 김주언)